

공단검진은 공단역에서



(조감도)



MEDI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대구북구] ☎ 전화예약 **053)350-9000**

푸른신문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제1,148호

창간: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달서 · 달성 지역신문
www.prsinmun.co.kr

성서최고의 휘트니스클럽

미강 SPLEX
MIGWANGSPOLEX

헬스 / 스쿼시 / 골프 / 유도
최고 시설의 사우나 / 탁구센터

본관: 053) 593-9990 ~ 7
신관, 골프장스튜디오: 053) 584-0775

헬스 연간회원 댄스 · 요가 · 필라테스 · 스피닝 무료수강

사우나 웰스 100% 참나무 **참숯가마**

24시간 **골프 연습장** 스크린

휴림원 300대 주차장 완비 ☎ 585-0100

대형 2인 풀구 대형이벤트 맞은

포장이사 전문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호성익스프레스

항상 우리집을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 635-7824

달서점 654-7824 수당점 739-7824 북구점 355-7824
 논현점 611-7824 화곡점 639-7824 남구점 473-7824

희망으로 ‘빛’ 나는 달서

2020년 평생학습축제 빛점등식
이곡장미공원, 월광수변공원 등 야경조명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3월 구청 본관 중앙소나무 앞에서 ‘희망으로 빛나는 평생학습도시 달서’를 주제로 2020년 달서구 평생학습축제 빛점등식을 가졌다.

평생학습축제는 예년과 달리 구청 앞 마당의 소나무에 조명을 밝히고 올해 평생학습 성과를 돌아보는 소규모로 진행됐다.

불빛을 반딧불 삼아 공부하여 공을 세운다는 형설지공의 의미와 함께 2021년에는 희망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과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아 ‘희망찬 2021년!’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날 행사는 평생학습동아리인 ‘희망의 스타’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을 빛으로 밝혔으며, 뮤지컬 브리즈의 미니 뮤지컬공연 ‘평생학습으로 여는 미래’로 마무리했다. 행사에는 이태훈 군청장 유귀근 의장 김대희 교장



(삼일야간학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성인문해(成人文解) 시화전 출판작 11점도 전시하여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달서구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구청 앞, 이곡장미공원, 월광수변공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야간경관조명은 내년 2월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점등하

며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대구 최초로 대
한민국평생학습대상 우수상을 수상
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되는
등 평생학습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
과를 이루었다”면서, “앞으로도 다
양한 평생학습 사업과 맞춤형 프
그램으로 배움의 욕구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점식 기자**

지면안내 >>>

- 지역 > 03~9면 >
- 고령 > 12면 >
- 성주 > 13면 >
- 지역사랑 파티너 > 15면 >
- 종합 > 16~19면 >
- 기고 > 20~21면 >
- 교육 > 23~25면 >
- 문화 > 26~27면 >
- 건강 > 29면 >
- 운세·날씨 > 30면 >
- 퍼즐 > 31면 >

디자인으로 달성 꽃피다

달성군, 대구시 도시환경개선 평가 2년 연속 우수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대구시가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년 도시환경개선 업무 추진실적 평
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달성군은 도시환경개선, 야간경관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등 도시환경개선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달성군은 지난 9월 달성교육지원청, 달성경찰서, 계명대학교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과 함께 체결한 ‘디자인으로 안전한달성 만들기 업무협약’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지역
및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각 기관
간 장기적인 인적자원 및 정보교류
를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달성



만들기를 목표로 2020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달성군은 또한 지난해 12월 대구시 8개 구·군 최초로 '달성군 경관조례'를 제정해 공공건축물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경관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

화원 오벽 가로경관 개선, 동국 칼
국수거리 경관개선, 구라리 지하차
도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 등 주요
통행로의 경관 개선 및 보행환경 정
비는 물론, 불법 광고물 자동 발신
전화 시스템 구축 등 옥외광고물 정
비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GCS CULTURE CENTER 푸른방송 문화센터

WINTER, 2020

겨울학기 회원모집

/ 강좌기간 2020년 12월 1일(화) ~ 2021년 2월 27일(토)

/ 접수기간 11월 2일(월) ~ 선착순 마감

/ 접수문의 감삼점 053) 565-0877~8
서재점 053) 624-0500

New Class 새롭게 만나는 시간! 신규강좌



프랑스 자수

수 10:30~12:00
100,000원 / 재료비 100,000원
구리아 대한유림자수협회대표

3D펜 창의융합지도자

금 10:30~12:00
6회 90,000원 / 재료비 100,000원
※3D펜, 재료비, 자격증응시료, 자격증비용 포함
민진아 전문강사

아프리카 전통악기 엠티피아노 칼림바

목 14:00 ~ 14:50 (소수정예6명)
120,000원 / 교재비 10,000원
※악기 상달 후 구입요망
(첫시간 악기대여 가능)
황신애 한국칼림바협회 대구2지사장



팡야팡야 유아체육

토 12:00~12:50 (5~7세)
8회 54,000원 / ※준비물 : 실내용, 물
체리선생님 전문강사
※1월, 2월 진행

팡야팡야 음악놀이

토 13:00~13:50 (6,7세)
토 14:00~14:50 (8세이상)
8회 54,000 / ※준비물 : 실내용동화, 놀이기
체리선생님 전문강사
※1월, 2월 진행

3D펜 창의융합 주니어반

금 16:00~16:50 (7세~초등)
10회 75,000원 / 재료비 45,000원
민진아 전문강사

달서구 성서산단호림역 유치 총력

민관 합동 캠페인 및 지속 건의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국토교통부 주관 대구산업선 관련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8일 성서산업단지역 네거리에 서 호림역사신설추진위원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유치 캠페인을 펼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호림역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림역 유치 캠페인은 달서구와 호림역사신설추진회(위원장 이종건)에서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매일 2~3회씩 추진해왔으며, 대구산업선 관련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캠페인 추진 및 정부부처 지속건의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달서구는 지난 6월에 호림역사유치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60만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주민서명서 및 청원서 전달, 지역경제인 간담회, 설치 타당성 용역,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국토부방문 등 호림역 신설에 대한 간절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성서산단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개최된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대구경제의 심장인 성서산단을 살리는 길은 호림역 신설뿐이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한 바 있다.

또, 이달 초 국무총리조정



실을 방문해 성서공단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성서산단을 살리고자 하는 기업인과 60만 구민의 뜻을 모아 성서공단 호림역 신설에 대한 달서구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달 중 개최예정인 대구산업선 주민설명회 시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성서산단호림역을 대구산업선 정거장에 포함시켜

성서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대구경제를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60만 구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법정동? 행정동? ‘우리 동은 무슨 동일까?’

달서구의 23번째 행정동 이름이 ‘유천동’으로 확정됐다. 신설되는 유천동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유천동, 선사동, 대천동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유천동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설문조사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승강기에 설문지 수거함을 설치해 가구별로 응답지를 받았으며 신설되는 동의 인구수는 약 3만 5,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

이 드는가? 아마도 이 일대의 주민이거나 유천동을 알던 사람은 ‘유천동은 원래 있던 동네인데?’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생기는 오해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소나 고유 지명에 쓰여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는 ‘유천동’은 법정동의 하나이며 이번에 확정된 ‘유천동’이라는 이름은 행정동으로서의 유천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용 용도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해 쓰는 게 일반적이다.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로 신분증, 신용카드와 관련한 주소에 쓰인다. 반면 행정동은 민원발급이나 주민관리 등 행정적 업무수행에 활용이 되는 것으로 행정구역 단위이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변동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

정동은 당연히 여건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반면, 법정동은 거의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유천동이 새로운 행정동으로 확정될 수 있었던 이유다.

구체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행정동이 나온 배경을 알 수 있다. 신설된 유천동은 진천동과 월성1동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는데 기존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이 다른 일반 행정복지센터보다 2

배 이상 많아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데 대기시간이 길고 문화강좌 수강도 경쟁이 치열해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행정동의 신설로 진천동과 월성1동의 인구 과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유천동이 신설되면서 유천동 행정복지센터도 새롭게 들어선다. 4층 규모이며 1, 2층에는 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고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을 배려해 3층에는 장난감도서관, 4층에는 돌봄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원욱 객원기자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용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문과 케이블방송 광고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 푸른신문 광고의 장점

유효성 _ 지면 크기, 위치 선택이 자유롭고 가격대 다양 적시성 _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내용으로 광고 가능

정보성 _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 카탈로그성 _ 소판안내 및 행사 안내

우수한 독자층 _ 가정, 직장에서 회람 가능, 광고 열독률 높음.

광고문의 053-572-6000



이번 ❄-mas, 마스크 안 쓰면 ❄!!

달서구 ‘마스크 쓰Go, 성탄 조용히 보내Go, 내년을 기대하Go’ 캠페인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로 대구지역의 성공적인 생활방역을 완수하기 위해 ‘마스크 쓰Go, 성탄 조용히 보내Go, 내년을 기대하Go’ 캠페인을 전개한다.

달서구는 지난 5월 선사시대로 랜드마크인 ‘2만년의 역사가 잠든 곳’ 조형물에 참을인(忍)자를 새긴 대형 마스크를 씌우는 퍼포먼스를 통해 ‘아직은 마스크를 벗을 때가 아니다’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형 산타모자를 씌우는 퍼포먼스를 통해 ‘마스크 쓰Go, 성탄 조용히 보내Go, 내년을 기대하자’는 메시지를 지역주민에게 전달한다.

대구지역의 성공적인 생활방역 완수를 위해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생활방역 메시지를 이색적인 캠페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온 60만 달서구민을 포함한 대구시민이



누구보다도 마스크 쓰기에 앞장 섭으로써 크리스마스 시즌

생활방역을 완수하는 한편 청정한 내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어린이를 위한 선원공원 놀이터

전국적으로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도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어떻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 있겠는가. 어린자녀들을 위해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선원공원 어린이 숲속 놀이터를 다녀와 보자. 선원공원은 2020년 9월7일에 개장한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린이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사방에 많이 널려 있지만 선원공원은 격이 다른 어린이 자연 놀이터이다. 먼저 와룡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맑은 숲속의 공기를 마시며 자유롭게 뛰어 놀 수가 있으며, 놀이공원에나 가야 탈수 있고 볼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요소요소에 있어 가히 어린이들을 위한 천국 같은 곳이다. 그것도 모든 놀이기구를 무료로 이용 할 수가 있다.

선원공원 놀이터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유아들을 위한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시작으로 아와나 나가야

탈수 있는 어린이용 짚라인과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린이용 해먹, 어린이 원두막,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안전 그물을 통과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물통을 통해 아래로 내려오는 스카이 스테이션이 있다.

그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 용등미끄럼틀이 있다.

약 50m 길이의 원통을 통해 미끄러져 내려오는 미끄럼틀로 인기가 너무 좋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탈수가 있을 정도이다.

용등 미끄럼틀은 정해진 시간엔 하루에 4회 30분씩만 이용 할 수가 있다. 난이도가 있는 놀이기구이다 보니 안전요원 아저씨의 통제 하에 안전모와 모포같은 미끄럼슈트를 장착하고 타야 한다. 또한 가족 공원 놀이터답게 깨끗한 남녀 분리형 화장실과 식수대 그리고 인포메이션 센터까지 갖추고 있다.

어린이들만을 위한 놀이터이지만 놀이터 한편에는 와룡정 정자와 군데군데 벤치들이 위치해 있어 어른들도 편히 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준다.

선원공원 어린이 숲속 놀이터는 오전 9시~오후 4까지 운영하며 음식물 반입은 안된다.

공원입구에는 크지는 않지만 공용 주차장이 있으며 공원입구에서 놀이터까지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 길로 유모차나 천천히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아스팔트로 된 길과 계단을 이용한 나무데크 계단 길이 있어 걷기 편한 쪽으로 이용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달서구청 공원녹지과 053-667-2855로 하면 된다.

김재훈 객원기자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달서구, 저소득취약계층 겨울철건강 관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2월 한달동안 동절기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달서구한 의사회와 지역 한의원의 재능기부로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방주치의사업은 동네 한의원 32개소가 한방주치의로 참여해 저성장, 희귀난치성 등 한약이 필요한 저소득가정과 결연하여 한방진료와 한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월 한 달 동안 130명에게 한방주치의로서 역할해 나갈

예정이다.

달서구는 2012년 달서구한 의사회와 달서구사회복지관 협회가 의료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약 100명 저소득취약계층에게 한약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69명(한가액 2억 3천만 원)에게 년 1~2회 정도 무료 한방진료 및 체질별 한약을 선물해 지역사회에 선행을 확산시키고 있다.

노회복 달서구한의사회장은 “달서구한의사회가 건강지킴이로 참여하여 저소득층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앞으로 한의원의 많은 참여를 통해 재능기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훈 구청장은 “재능기부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달서구한의사회에 감사드리며, 지역의 의료기관이 동참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질 높은 한방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며, 복지와 한방이 만나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대구도시철도

2020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대구도시철도공사는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유엔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하고자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국민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선정된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권위있는 상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등 각종 재난·재해수습에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적극 발굴해 포상했다.

공사는 2006년부터 직원들로 구성된 참사랑봉사단을 조직해 15년째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



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DTRO장학회를 결성해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올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의료진 내의 지급,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코로나 극복 성금모금 등 한발 앞선 대응으로 대구

시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홍승환 사장은 “이번 포상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공사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생각하고, 앞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각종 재난과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도시철도공사〉

달서소방서, 민간인 화재진압 유공자 표창

주택밀집지역 안심소화기 활용 대형화재 막아



달서소방서(서장 우상호)는 골목길 안심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진화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이우환(남·64) 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우환 씨는 지난달 23일 송현동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보관 냉동창고

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본인 소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골목길 안심소화기 2개를 활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씨는 골목길 안심소화기 설치에 적극 협조했으며 평소 이웃 주민들에게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는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고용센터			
관리·사무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신한정공(주) 053-719-6321	지재·구매 사무원 (기계·자동차·금속)	전문대졸 이상	연 2,800만 원 이상
(주)경진에스디에스 053-588-7721	지재·구매·물류 사무원	무관	연 3,000만 원 이상
경북합판(주) 053-584-9445	경리 사무원	무관	월 200~240만 원
비와이(BY)테크 070-4400-7390	생산·품질 사무원	고졸 이상	월 250만 원 이상
(주)부광정밀 053-583-0580	생산·품질 사무원	무관	월 200~250만 원 (상여 100%)
(주)부강건설 053-557-9250	경리 사무원(건설)	무관	월 200만 원 이상
기술 기능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한샘7업 053-585-2690	금속기공 기계조작원	무관	시급 9,000원 이상
대경특수강(주) 053-581-2121	통기계 조작원	무관	연 2,660만 원 이상
원일키 053-351-4492	연삭기 및 연대(광택)기 조작원	무관	연 2,600만 원 이상
태원비날신업 053-586-9854	인쇄 후가공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주식회사 태진7업 053-592-6096	금속기공 기계조작원	무관	연 2,400~2,600만 원
GB-ni-en 053-584-6703	기타 기계조립·검사원	고졸 이상	연 2,500만 원 이상
한남대구서비스 053-585-4468	자동차 엔진·세시·전기·전자 정비원	무관	월 280만 원 이상
단순 생산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티보드 053-583-2577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월 230만 원 이상
(주)합선도공 053-581-3126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Y&T씨유패 053-581-3031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주)칼리스 053-580-4244	인쇄·로제, 기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8,720원
동국철판 053-554-9852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월 220만 원 이상 (상여 120%)
영업(판매), 운전·배송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경일환경 053-527-9114	하역·작업 종사원	고졸	월 300~350만 원 (상여 100%)
(주)우주엔비텍 053-592-0590	일반 영업원	전문대졸 이상	연 3,000만 원 이상 (상여 50%)
(주)대웅페이퍼 053-254-3911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고졸 이상	월 210만 원 이상
광명지원 053-283-1007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월 210~250만 원
대경특수강(주) 053-581-2121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연 2,660만 원 이상
이인테크 053-719-0669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월 230~250만 원 (상여 100%)

※ 문의: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08 www.work.go.kr/daegujobdu

등 지역사회 안전유지에 힘써 왔다.

우상호 서장은 “진·출입로가 협소한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많은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달서소방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최우수’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관상 수상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에 서 진행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고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도시형과 농촌형을 포함한 대구의 모든 지역 중 달성군이 유일하게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는 전국 222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예산집행, 서비스 연계성적, 아이돌보미 선발과

관리 및 교육, 사업 운영의 적극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도시형, 농촌형 등 유형별로 상위 30% 대상을 우수기관으로 우선 선정하고, 우수기관 중 유형별 3개소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약 14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500여 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공백 시 코로나 특례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 일부 특례 환급 및 추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이 달성군 관내 거주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서비스를 확대해 아동 1인당 연간 84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도 달성군 관내 모든 가정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가족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



문화가족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자녀성장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636-5666)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달성군 환경관리업무 평가 4년 연속 우수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실태 우수지자체에도 선정 겹겹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3일 대구시에서 실시한 ‘2020년도 구·군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환경정책 및 물관리 업무 등 환경업무 전반에 대해 3개 분야 27개 항목을 평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 달성군은 녹색제품 구

매액이 월등히 높았고, 관리대상 석면 건축물에 대해 95% 이상 점검률 달성, 수질오염 사고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방제 훈련 및 배출업소 관리 등의 업무 추진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달성군은 또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환경관리실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시상금을 받는 겹겹사를 맞았다.

김문오 군수는 “힘든 여건속에서도 주민, 단체 및 공무원이 노력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사문진 주막촌 ‘다 함께 공존(共Zone)’

달성군시설관리공단(대표 강순환)은 지난달 26일 사문진 주막촌에 장애인 휠체어 배려 공간 ‘다 함께 공존(共Zone)’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은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의 사문진 주막촌에서의 식사 등 시설 이용 시 편의 제공을 위해 주막촌 내 천막 공간에 휠체어 공간을 마련해 동절기 추위에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휠체어를 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취지로 시설의 이름도 ‘다 함께 공존(共Zone)’으로 정했다. 함께 라는 의미의 한자 共(공)과 구역의 의미를 하는 영어 Zone(존)의 합



성이다.

강순환 이사장은 “사문진 주막촌 장애인 배려공간은 사문진역사공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선정과 맞물려 시설 이용 취약자들을 위한 공단의 핵심 가치와 뜻을 같이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안

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2019년에도 사문진 유람선에 장애인 휠체어 배려공간이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성군시설관리공단>

연말... 따뜻함을 연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벌써 12월이 되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니 섭섭하기도 설레기도 하다. 섭섭한 건 보내는 한 해에 대한 것이고 설레는 것은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보낸 시간이 많은 만큼 가족들과 함께 휴파티를 통해 코로나 불무를 물리치고, 알차고 차분하게 새해를 계획하면 좋을 듯하다.

특별한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조명이 바뀌어도 집안 분위기는 한층 달라진다. 촛대를 이용한 테이블 조명, 알전구를 이용한 파티 분위기, 스탠드 전구의 색온도만 달리 해도 분위기는 따뜻함과 생동감을 가져다 준다.

아이들, 가족들이 함께 집안 곳곳을 장식하면서 집안 분위기 화사하게 하고, 기분도 전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도 좋을 듯하다. 교보문고 핫트랙스나 동아백화점 모던하우스, 다이소 등에 가면 아기자기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많다. 핫트랙스 한 쪽 코너에는 크리스마스용품이 진열되어 있다. 가격대도 몇천 원대부터 있으니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초에서부터 식탁매트, 크리스마스 그릇, 크리스마스 상자, 산타 모자, 장식용품 등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 있다.

요즘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쓴다. 특히 식물 인테리어는 유행이 되어버렸다. 실내를 정화해주는 식물부터,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잘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이 있어 키우기에 부담이 없다. 추위에 강한 다육식물(잎이나 줄기 속에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은 밤에도 산소를 뿜



는다고 한다. 다육이들로 미니정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한다. 또 연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식물이 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포인세티아, ‘축복과 축하’의 꽃말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연말을 밝히기에 충분하다. 실내(적정온도 21~25℃)에서 키울 수

있어 겨울내 실내에서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수 있을 듯하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아이들, 가족들과 따뜻한 분위기로 집안을 꾸미는 재미도 함께하고, 연말 분위기도 만 들어 가족, 이웃과 나누지 못한 돈독한 시간들을 가져보

자. 따뜻한 분위기가 각자의 마음을 환히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나눔이 한해를 보내는 헛헛함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윤준송 객원기자

광고문의
053. 572-6000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상실 위기가구 이사 지원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권성열, 민간위원장 김관도)는 지난달 30일 주거 철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대상자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다.

김모 씨(55)는 하빈면 봉촌1리 소재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7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거주지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이사비용 등을 보상받았으나 당장의 생계와 건강 문제로 인해 거주지 마련과 이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달성군은 계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연에 따라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대상자는 최종 패소해 거주지가 강제철거 되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하빈면 맞춤형복지팀은 달성군청 통합사례관리사와 협업체 김 씨가 이주할 빈집을 구하고 싱크대 교체, 수도 누수 공사 등을 지원했으며,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도배, 장판 공사도 함께 진행했다. 또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청소와 이사를 도우며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권성열 하빈면장은 “이번 주거위기가구 이사 지원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성군청>

수목원 숲길의 고마운 ‘양심 지팡이’

기자가 자주 가는 수목원 숲길 입구에 언젠가부터 나무 지팡이들이 세워져 있었다. 처음엔 서너개 있었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11개까지 늘었다. 나무 종류도 다 다르고 굵기와 길이도 제각각이다.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누가 이걸 여기 갖다 놔줄까 몹시도 궁금했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다 사용하고 다시 갖다 놓으라는 뜻이었는지 싶어서 혼자서 맘대로 ‘양심지팡이’ 이라고 이름도 붙여 보았다. 수목원 숲길은 그다지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 젊은 사람들에게 등산스틱이나 지팡이가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 등산객들에게 아주 고마운 존재이다. 실제로 지팡이를 골라 사용하시는 할머니도 본 적이 있다.

지팡이를 보니 죽은 나무들 중에 곧은 걸 골라 일부러 다듬은 흔적이 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나무 지팡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무를 고르고 다듬었을 수고와 마음을 생각하니 따뜻한 점이 느껴진다.

누군가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뭘 만들고 수고를 해본 적이 언제였던가?

문득 오래전 인기 가수 변진섭의 노랫말이 생각난다.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노래 가사처럼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버거워하는 이웃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가파른 길에 지팡이를 의지하면 훨씬 수월해지는 것처럼 작은 관심과 사랑은 힘든 이들에게 어려움을 덜고 일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목원 숲길의 지팡이처럼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지팡이가 되어주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순옥 객원기자



TALK HD·UHD 방송

푸른방송이 만들어가는
디지털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바로! (053) 551-2000 www.gcs.co.kr

국내 최고 버라이어티 채널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드라마로 꿈꾸는 세상

내 손 안의 즐거움

다시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달서 · 달성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말 맞아 어려운 이웃에 연탄 및 김장김치 후원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백기)는 연
말을 맞아 사단법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대구경북
본부에 연탄 2,500장을 기부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일 달서구를 방
문해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
록 난방비 5,130만 원을 전달했다.



이곡1동주민자치위원회, 훈훈정 나눔 성금
이곡1동행정복지센터(동장 권영철) 주민자치위원
회(위원장 이진길)는 지난 2일 행정복지센터 회의
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행사를 ‘훈훈정나눔 성
금 전달’로 대체했다.
이곡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한해였지만 더 힘든 위기가정에 조금이나마 보
탔이 되고자 성금 120만 원을 이곡1동행정복지센터
에 후원했다.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달서구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회장 김용욱)는
지난 2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달서구 13
개의 새마을금고에서 모은 300만 원을 (재)달서인
재육성장학재단에 전달했다.



달서구, 계명카리타스봉사센터 사랑의 연탄 나눔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달 28일 계명카리

타스봉사센터에서 계명대학교 학생 및 관계자 35명
이 참여해 월성1동 저소득계층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계명카리타스봉사센터는 달서구 이웃사랑연료뱅크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고, 후원금 중 일부인 1,800장을 저소득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하빈면 김복만, 백미 20kg 20포 기탁
하빈면 동곡1리 김복만 씨는 7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130만 원 상당의 쌀 20kg 20
포를 하빈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현풍교회 후원 물품 기탁
현풍교회(담임목사 송일두)는 2일 현풍읍 행정복
지센터를 방문해 백미와 라면, 화장지(220만 원 상
당)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엄마사랑어린이집
다사읍에 프리마켓 수익금 기탁
다사읍 엄마사랑어린이집(원장 하다희)은 2일 다
사읍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63만 5,000원을
기탁했다.



화원을 '달한마리 행복한 집'
삼계탕 100인분 기탁
화원을 '달한마리 행복한 집' (대표 김미환)은 7
일, 화원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삼계탕 100인분(12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대구지구 및 달성 청년회의소
사랑의 후원물품 기탁
대구지구 청년회의소(지구회장 함승훈)와 달성

청년회의소(회장 배현문)는 지난달 29일 백미(2kg)
80포대와 직접 담근 김치(8kg) 80박스를 기탁했다.

고령 · 성주



고령군상공회의회 성금 기탁
고령군상공회의회(회장 김종태)는 3일 고령군청
을 방문해 교육발전기금 300만 원과 대가야희망플
러스 200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나눔연맹, 사랑의 성품 후원
(사)한국나눔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2일 고령
군청을 방문하여 연탄 1만장, 김치 10Kg 300박스,
라면 500박스를 기탁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령지사 교육발전기금 기탁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령지사(지사장 송정환)는 3
일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교육발전
기금 160여만 원을 기탁했다.



지기토건(주) 김정석 대표 성금 300만 원 기탁
성주군 대가면 지기토건(주) 김정석 대표는 대가
면에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300만 원을 기탁
했다.
김 대표는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대표적
인 기부천사로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모범사업가
이다.



육일부직포 공업, 성금 기탁
육일부직포공업(대표 여권택)은 4일 수문면사무
소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연중무휴 트렌드 맛집
SANDBOX+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감동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 참여방법: 사연과 관련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푸른방송제작팀 E-메일 gcsup@gcs.co.kr / yellowid@gcsch4
☎ 053-551-2002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방송시간

매일 ⇨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 (종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샌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코드가 맞지 않는 강적들이 뿔났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 JTBC 토요일 밤 9:00



인생을 살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사소하지만 궁금해 견딜 수 없는 질문들. 그럴 땐!!! '질문하라! 아는 형님'이 답할 것이다. 나이도, 출신도, 성격도, 외모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추측하고! '실험 하고! 전해주는 '아는 형님'만의 인생 해답!

케이블 채널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환상적인 멜로 판타지의 주인공, 남자구미호

그동안 드라마에 나왔던 구미호는 대부분, 사랑스러운 여자 구미호들이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남자 구미호다. 당장 간이라도 빼주고 싶게 만드는 신비한 얼굴로, 오직 한 여자를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순정남. 구미호 "이연"은 여성들이 꿈꾸는 가장 동양적인 판타지가 될 것이다!

구전동화 속 주인공들이 돌아온다! '모던' 한 옷을 입고 인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액션물

새로운 무술과 CG 시퀀스를 통해 그간 보지 못했던 독특 한 비주얼의 액션을 보여줄 것이다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 (VOD)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소리도 없이

악의 없이, 계획에 없던 유괴 범이 되다!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근면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시체수습을 하며 살아가는 '태인'과 '창복'. 어느 날 단골이었던 범죄 조직의 실장 '웅석'에게 부탁을 받고 유괴된 11살 아이 '초희'를 먹지로 떠맡게 된다.



담보

"담보가 무슨 뜻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아이에게 인생을 담보 잡힌 두석과 종배, 빛 때문에 아저씨들에게 맡겨진 담보 승이.
두석, 종배, 승이 세 사람은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돈 받으러 갔다가 인생의 보물을 만났다!



시청방법 ▶▶
메뉴 → VOD다시보기 → 영화 → 극장동시상영권

문의전화 053.551-2000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고령-달성 상생 협력 확대

사문진교 야간경관 기본계획 중간보고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을 연결하는 사문진교 야간경관 기본계획 중간보고회가 광역한 고령군수, 김문오 달성군수, 성원환 고령군의회의장, 두 지자체 간부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고령군청에서 개최됐다.

본 사업은 광역한 고령군수와 김문오 달성군수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고령군의 상생 협력을 위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7일 김문오 달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달성군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오늘 중간보고회를 갖게 됐다.

사문진교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고령군과 달성군은 이날 28일 대구경북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가야금-피아노 공동연주회, 상생 주말장터운영, 상생공원 조성 등 강나루 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사업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한 군수는 인사말에서 “고령군과 달성군은 낙동강 55km를 접하는 이웃으로 사문진교 야간 경관개선사업은 지자체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협의해 나가고, 양 지자체의 공동발전과 대구경북



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간보고회 후 두 군수는 지산동 고분군과 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생물현장방문에 동행하며 상생의 길을 함께 걸었다. 일행은 세계유산등재를 앞두고 있는 지산동 고

분군 하단부 작은 오솔길에서 고분군 야경을 감상했다. 야간경관 조명은 대가야읍의 탁 트인 전경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어 지역의 경관 감상의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고령군청〉

대가야교육원 수강생 모집

7~18일 원서접수, 내년 1월 9일 선발시험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박용환 군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일부터 18일까지 대가야교육원 수강생 선발을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선발시험은 내년 1월 9일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관외지역에서 관내학교로 전학 예정인 학생으로, 본인과 보호자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본원 예비 중 1·2·3학년 각 15명, 다산원 예비 중 1·2·3학년 각 10명, 예비 고등 1·2·3학년 각 12명 등 총 11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 학기보다 40.3% 감소한 인원이다.

대가야교육원은 강의 수준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월, 화, 수 주 3일로 수업일수를 단축 운영하고 수업도 국어, 영어, 수학 등 수능 주요과목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가야교육원 설립 목적에 맞는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입시전형 변화 및 코로나19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대가야교육원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

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강의의 불안정성, 강의과목 조정에 따른 대면강의 축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 온라인강의 수강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 수강권은 고령군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상쇄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는 고령군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정식 기자

쌍림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나도 모델 사진찍기’

고령군 쌍림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창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도 모델 사진 찍기’를 실시했다.

‘나도 모델 사진 찍기’ 프로그램은 2020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장수사진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추억의 장소에서 어르신의 생활 모습을 인물사진으로 남겨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준 어르신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마을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 시행 예정이었던 스타기업 현판식 개점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됐다.

고령군은 스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진액 지원확대(최대 5억 원) 및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선추진, 기업 수요에 맞는 전략적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박용환 군수는 “올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경

제 발전에 힘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매진하여 고령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광고문의
053. 572-6000

67년의 기다림 끝에 가족의 품으로

호국의 영웅 귀환

성주군은 2일 금수면사무소에서 고(故) 송해경 이등중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개최했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다. 허육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이날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유가족들에게 고(故) 송해경 이등중사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함을 전달했다.

고(故) 송해경 이등중사는 1952년 3월, 육군 2사단 31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7월 강원도 철원군의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행사는 박노선 성주부군수, 김경호 성주군의회장, 박신한 대구지방보훈청장, 이형숙 성주군보훈단체연합회장 및 성주군보훈단체장을 비롯하여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

박노선 성주부군수는 “고



(故) 송해경 이등중사께서 67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귀환하시게 되어 가슴이 뭉클하다. 유해발굴에 힘써 주신 국

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성주군4-H회 경북4-H 경진대회 2개 부문 수상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성주군4-H연합회 회원 20여 명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Untact를 넘어 Digitact로!’라는 주제로 실시한 제52회 경상북도4-H 경진대회에 참여해 회원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회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농창업 아이디어 경진’과 ‘농산물 꾸러미 콘테스트’, ‘디지털 장기자랑’ 등은 4-H회원들이 미리 영상으로 촬영하여 전문가와 시청자가 클릭한 ‘좋아요’ 조회 수로 평가하는 사전경진으로 실시됐고, ‘4-H퀴즈 골든벨’, ‘넌센스 그림퀴즈’ 등은 회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모여 실시간 화상경진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영농 창업 아이디

어 경진에서 우수상(이태훈),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 꾸러미 콘테스트 경진에서 장려상(박미애, 이주환, 여찬현, 배한석, 안성호, 김가성)을 수상했다.

성주군4-H연합회장(박상현)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경진대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조금은 생소했지만 회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고대인의 삶과 죽음을 한 눈에...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임시 개관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을 1일부터 임시 개관했다.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은 성주읍 성산리 822번지 일원의 46,188㎡ 부지에 상설전시실, 어린이체험실, 가족쉼터, 수장고, 다목적강당 등 건축면적 2,895㎡ 규모로 지어졌으며, 어린이체험실과 가족쉼터, 야외전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상설전시실은 대여유물 전시가 완료되는 내년 1월경 정식 개방할 계획이다.

우선 개방되는 어린이체험실에서는 발굴체험 ‘유물을 찾아보아요’와 공을 던져 도굴꾼을 잡는 ‘유물을 지켜라’ 등의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비롯해 ‘성밖숲에 와요’, ‘별고를 성주를 여행해요’ 등 성주의 관광명소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어린이체험실 옆 가족쉼터는 어린이도서 700여 권을 갖추어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 관람객이 책을 읽으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상설전시실에는 가암리 금동관을 비롯하여 고려자루 큰칼, 방울잔, 그릇받침 등 국가지정 사적 제86호 ‘성주 성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와 장신구, 무기류 등을 다양하게 전시할 예정이다. 임시개관 기간 중 전시관 운영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고분군 주변에 해바라기·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여 이미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내년에는 고분군 주변에 유채·해바라기단지를 비롯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하고, 고분군 산책로와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변 경관을 더욱 알차게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병환 군수는 “이 곳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을 전시할 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각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길 바라며, 임시개관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해 성주군의 생·활·사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고령군 스타기업 선정

(주)케이원메탈, 신한주철공업(주), (주)미래금속, (주)명진

고령군(군수 박용환)은 지역경제의 리더 역할을 할 미래성장 유망 중소기업 4개 업체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3일 ‘2020년 고령군 스타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은

고령1일반산업단지의 (주)케이원메탈, 신한주철공업(주), (주)미래금속과 다산면 (주)명진 등 모두 4개 업체이다.

기술 혁신적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미래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로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 매출액 상승률, 기술개발 실적, 신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됐다. 당초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선정업체 현장에

달서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4일 구청 회의실에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적극적인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1차 심사를 거친 우수사례 5건을 발표해 최종 순위를 심사·결정했다.

최우수상은 ‘코로나19 면역 취약계층을 위한 차량안심방역’ 사례가 선정됐고, 우수상은 ‘냄새·연기, 규제들 넘어

서 적극해결’과 ‘드론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입체적 환경감시망 구축’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와 ‘코로나19 입대료는 내리고, 희망은 올리고’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발표와 질의응답 토론회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의 실무상 어려움 해결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공직자들이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됐



다.

이태훈 구청장은 “힘들었던 올 한 해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한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대구, 희망의 불빛으로 물들다

대구 도심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

대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도심 주요 공원인 국제보상은 동기념공원과 가로변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아름다운 빛을 밝혀 새로운 희망을 전한다.

대구 중구 국제보상은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 가로변에 설치된 하트조명과

하트터널, 수목은하수, 종각네거리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문자가 화려한 빛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설치된 경관조명은 지난 1일 점등을 시작으로 내년 2월 중순까지 연말연시 기간 동안 대구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여 밝고 생동감 있는 도시 이

미지를 연출할 예정이다.

점등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이며, 가족, 연인들의 밤 데이트 장소와 드라이브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아름답게 빛나는 야간경관 조명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힘겨웠던



한해지만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

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구청〉

활기 넘치는 ‘포항 죽도시장’ 새벽경매 풍경

여행과 식도락을 즐기는 기자는 주말새벽만 되면 희한하게 눈이 번쩍 떠진다. 올해 동해안에 오징어가 풍년이라고 해서 죽도시장 경매 구경에 재미를 붙였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덕분에 한 시간이면 포항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다. 새벽 5시부터 경매가 시작되어 7시 전에는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에 6시쯤 도착하면 여유 있게 경매를 구경할 수 있다.

땀그랑 땀그랑 종이 울리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마이크 잡은 경매 진행요원이 외국어 같은 요샅한 말을 말하면(몇 번 들어보니 생선어류와 가격을 아주 빠르게 발음하는 거였다) 감정색에 노란색 숫자가 적힌 모자를 쓴 경매인들의 손길과 눈길이 바빠진다. 제시한 가격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되는데 그렇다고 시세보다 무턱대고 높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눈치작전이 엄청나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최고의 물건을 선정하려는 경매인들 간의 눈치작전과 손가락 신호를 보는 재미가 쏠쏠해서 이 경매 저 경매 우르르 몰려다니며 열심히 목을 빼고 구경을 했다.

물 좋은 오징어, 아귀, 대구, 알이 짙은 도루묵 등 제철 맛은 다양한 생선들이 좋은 가격에 낙찰받기를 기다리며 위판장 바닥에 줄지어 늘어 있다. 올해 풍년이라고 하는 홍게도 산다미처럼 쌓여있는데 가격이 마리당 1,5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해서 한보파리 사면 온 가족이 실컷 먹을 수 있다. 일반인들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지만 경매인들이 낙찰 받은 물건을 소매상에 넘기기 전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 필요한 생선은 눈여겨보면 되겠다. 전날 날씨가 안 좋으면 조업을 못하기 때문에 경매에 나오는 생선이 거의 없을 수 있는데 죽도시장 경매 구경을 가고 싶으면 전날 날씨 상황도 반드시 체크 할 것. 그리고 죽도시장 위판장은 매일 첫째, 셋째 일요일은 휴무다. 또 하나 꿀팁은 미리 아이스박스과 아이스팩을 준비해서 가면 비용도 아끼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어 좋다.

김장철을 맞아 잘 손질된 갈치와 생새우도 난전마다 한 가득이고 겨울철 포항의 명물 과메기도 가게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손님들 발길을 붙잡는다. 손님을 부르는 큰소리와 왁자지껄한 시장분



위기는 살아 펴떡이는 생선만큼이나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가득하다.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죽도시장 새벽경매 구경 적극 추천한다.

서순옥 객원기자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연장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15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대구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방문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12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①(상시 근로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②(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및 업종별업종(10억 원 이하)~제조업(120억 원 이하) 등
11월 20일 현재 사업자 등

목이 되어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매출감소와는 상관없이 보건소 방역자료 등에 따른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생존자금 신청으로 1백만 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 원 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

를 통해 접속,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sbiz.daeg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달서구, 우리마을 교육나눔 비대면 성과교류회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8일부터 31일까지 11개동(성당동, 감삼동, 용산1동,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3동, 도원동, 송현2동, 분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달서구 우리마을 교육나눔 비대면 성

과교류회’를 개최한다.

한 해동안 추진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하고자 11개동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구청 1층 로비에서 활동사진 전시를 시작으로 달서구

및 동별 SNS에 활동영상을 게시하여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또 지역 주민에게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서 사진 전시를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개동이 추가되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교육 공동체 활동이다.

洞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경찰서, 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협동과 공유를 통해 마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11개동이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1개동이 추가되어 12개동이 참여할 예정이다.

변점식 기자

겨울 불청객 빙판길 낙상사고

올 한해 유난히도 빠르게 느껴졌던 가을이 지나 겨울이 성큼 찾아왔다. 일년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 겨울. 빙판길이나 눈 내린 바닥을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 특히 운동신경이 떨어지며 뼈의 강도가 약한 노인의 경우는 가벼운 낙상으로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흔하게 발생하는 빙판길 낙상사고의 종류와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낙상 환자, 반 이상이 겨울철에

낙상의 정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거나 떨어지고 부딪혀서 다치거나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특히나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고령에서 더 위험하다. 2019년에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에 발생한 국내 낙상 입원 환자가 전체 낙상 입원 환자의 51.7%로 다른 모든 계절에 낙상 사고로 입원한 환자 숫자보다 많았으며, 65세 이상 환자가 65세 미만 환자의 약 6배로 높게 나타났다. 세계적인 통계로도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약 30%, 80세 이상에서는 약 40%의 인구에서 매년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낙상으로 인한 주요 손상 부위는 남자의 경우 외상성 뇌손상, 여자의 경우 고관절 골절이 가장 흔하며, 그 외에도 척추 골절이나 손목 골절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뼈가 약한 노인이나 여자의 경우 경미한 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흔한 낙상사고의 종류와 치료

낙상사고로 인한 손상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교통사고, 추락, 낙상 등의 충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되거나 두개골 내부의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둘째는 척추 손상으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해 척추뼈가 납작하게 찌그러지거나 허리를 꺾고서 요통이 발생하는 상태이다. 셋째는 고관절 주위 골절로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지점의 고관절 주위가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부러진 상태를 일컫는다.

경미한 낙상의 경우 단기간의 휴식과 스트레칭 등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평소 뼈가 약하거나 운동량이 많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 골절 등의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외상성 뇌 손상의 경우, 출혈의 위치에 따라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척추 손상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조기 등을 착용하여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척추 성형술 등의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노년층의 고관절 주위 골절은 1년 내 사망 확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에는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고관절 골절은 연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술을 시행하는 질환으로 보고 있다. 적절한 수술을 시행하고, 환자가 가능한 한 빨리 침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야 욕창, 폐렴 및 기타 합병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겨울철 낙상사고의 예방법

낙상사고 이후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다. 조급한 주의를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

는 빙판길 낙상사고의 예방법을 소개한다.

옷차림을 안전하게, 그늘진 곳은 피하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낙상을 하는 경우 순간적인 대처가 어려워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 보다는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무겁고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것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장 겹쳐 입어 몸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빙판길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그늘진 곳은 해가 들지 않아 빙판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밝은 곳으로 다니는 것이 좋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 체크해 보기

평소에 꾸준히 먹는 약이 있다면,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트레칭과 꾸준한 운동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 밖을 나서기 전에 근육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준비운동을 습관화 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에도 꾸준히 가벼운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 주면 낙상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료제공: 김철호 가천대길병원 정형외과 교수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0년 12월 호 발췌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

송은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79@hanmail.net



145. 의로운 누이 이랑, 의자이랑지묘

1) 프롤로그

음력 10월은 묘사시절이다. 일 년 내내 별 만남 없이 보내다가도 이맘때만 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문중원들이 모인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제 각각 바쁘게 살면서, 특히 금년은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사회활동에 엄청난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묘사는 행해졌다. 음력 10월 한 달 동안 선조별로 날짜를 정해 행해지는 묘사. 묘사는 어제, 오늘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다. 수 백 년 세월동안 대대손손 이어져온 전통문화다. 하지만 묘사문화도 조만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계승되든지, 소멸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묘사가 생겨날지. 하긴 묘사 때마다 파묘 터나 묵은 묘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미 묘사문화에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 이번에는 가창면 냉천리에 있는 12살 소녀의 묘소, ‘의자이랑지묘(義姊李娘之墓)’에 대한 이야기다.

2) 의로운 개 무덤, 의구총(義狗冢)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학창시절 방학 탐구생활 교재에 의로운 개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 화재로부터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후로 소에 대한 비슷한 내용도 접했던 것 같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분명 감동적이기는 한데 뭔가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아마도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 같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허구보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논픽션 소설이 독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처럼.

‘의구총’ 스토리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여러 사례가 있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에 있는 의구총[경북 민속자료 제105호]이다. 이 스토리는 1629년(인조 7) 선산부사 안응창이 지은 『의열』 「의구전」에 전한다. 의구총 스토리는 대략 이렇다.

선산부 동쪽 연향에 사는 한 역참 아전이 누른빛이 도는 개 한 마리 길렀다. 영리한 이 누렁이는 주인을 잘 따랐다. 하루는 아전이 옆 동네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오는 길에, 월파정 북쪽 큰길에서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다. 이때 들뜬에 큰 불이 났다. 누렁이는 수백 보 거리의 낙동강까지 달려가 꼬리에 물을 적인 후 돌아와 불끄기를 반복했다. 결국 누렁이는 물을 고고 주인 곁에서 죽었다. 주인이 술에서 깨어나 주변을 보니 들뜬에 화제가 있었고, 자신 곁에 꼬리가 심하게 그을린 채 죽어 있는 누렁이를 발견했다. 주인은 누렁이가 자신을 구해준 사실을 알고는 고마움에 묘를 만들어 장사를 치러주었다. 훗날 사람들이 누렁이가 죽은 곳을 구묘방(狗墳坊·개무덤 동네)이라 불렀는데 지금도 길가에 의구총이라 불리는 누렁이 무덤이 있다.

1994년 선산군은 한 동안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의구총을 새롭게 정비했다. 봉분은 직경 2m, 높이 1.1m이며, 봉분 뒤편에는 의구 누렁이의 스토



1924년 다시 세운 의자이랑지묘비



가창면 냉천리 의자이랑지묘

리를 4장의 돌에 새긴 석판이 있다. 이 그림의 원본은 1685년(숙종 11) 어느 화공이 그린 4폭의 의구도라 한다. 한편 이 마을 구전에 의하면 누렁이의 주인인 역참 아전은 노성원, 혹은 김성발이라고 한다.

3) 화마로부터 남동생을 살린 12살 소녀 이랑

개나 소도 이러할진대 사람은 오죽할까. 우리고 장에는 의구총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묘가 하나 있다. 가창면 냉천리 주암산수양관 가는 길에 있는 ‘의자이랑지묘’다. 의자이랑지묘는 ‘의로운 누이 이랑의 묘’라는 뜻. 대체 이곳에는 무슨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34년(순조 34), 이 마을에 이씨 성을 지닌 12살 소녀가 살았다. 하루는 몸이 불편한 채로 일을 나간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죽을 췌어 집을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다. 삼시간에 집안전체가 화마에 휩싸였다. 소녀 이랑은 불길을 피해 탈출할 수 있었지만 방안에 찻먹이 남동생이 자고 있었다. 이랑은 찻먹이 남동생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이랑은 남동생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그렇게 화마를 버텼다. 불길에 잠기고 아버지 어머니는 잊드린 채 불에 그슬린 딸의 시신 아래에서 찻먹이 아들을 발견했다. 12살 누이는 죽었지만 대신 찻먹이 남동생은 살아남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당시 대구판관 조종순은 소녀 이랑의 의로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묘 앞에 비석을 세워주었다. 지금 가창면 냉천리에 있는 ‘의자이랑지묘비’가 그것이다.

본래 이 묘는 현 위치 동쪽 가창 국도변에 있었는데 2002년 도로확장 때 현 위치[냉천리 182]로 옮겨졌다. 참고로 의자이랑지묘 스토리에 연도 오류가 보인다. 대부분 자료에는 이랑의 일이 1834년에 있었고, 당시 대구판관 조종순이 비를 세웠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조종순이 대구판관으로 있었던 시기는 1824년 12월에 서 1827년 12월까진이다.

4) 가창면 냉천리 의자이랑지묘(義姊李娘之墓)

주암산수양관 가는 좁은 산길 좌측에 자리한 이랑지묘 입구에는 달성군에서 세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안내판 바로 뒤편에 묘소가 있는데 안내

판을 발견하지 못하면 묘소 찾기가 쉽지 않다. 10여 평 남짓한 묘소에는 작은 봉분이 있고 봉분 앞쪽에 대구판관 조종순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묘비가 있다. 묘비 전면에는 ‘의자이랑지묘’라 새겨져 있고, 그 좌우에 소녀의 의로운 죽음을 위로하고 칭송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비 측면에는 1924년 3월 3일 가창면에서 비를 다시 세웠다는 내용도 새겨져 있다. 참고로 비문에 보이는 ‘갑라’는 12세 어린 나이에 진시왕의 책사로 활약한 중국 인물이다.

의자이랑지묘(義姊李娘之墓)
감라기령(甘羅其齡) 감라의 나이(12살)에
섬염내지(島嬪乃志) 수줍게 소곤거려던 그 뜻
대제이사(代弟而死) 동생을 대신해 죽은 것은
위친자사(爲親之禍)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함이라

5) 에필로그

의자이랑지묘에 새겨진 추모글을 보노라면 한편으로 흐뭇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비는 조선후기인 1800년 대 초에 조성된 것이다. 물론 지금의 것은 1924년 새로 조성한 것이지만 비문은 처음 것을 그대로 사용했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보자. 爲親之禍. 아버지가 대를 잇기 위함이라. 전체 16글자 중 유독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글자가 여기에 있다. 맨 마지막 글자 ‘禍’. 이 글자는 대를 잇는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글자다. 글의 주된 내용은 12살 소녀 이랑의 죽음을 칭송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글의 방점은 다른 데 있다. 이랑이 의로운 죽음을 선택한 것은 아들이 남동생을 살려 아버지의 대를 잇고자 했다는 것.

역사는 당시 시각으로 바라봐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아들로 손자로 이어지는 대물림이 효의 출발이었던 당시로서는 이랑의 행동이 분명 칭송받을만한 행동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 비문을 보면 씁쓸한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이랑 스토리는 1871년 발행된 『달성군지』 「이적」조에 ‘의자비(義姊碑)’로 등재되어 있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목요단상(木曜斷想)

말로서 말 많으니

참으로 말하기 쉬운 세상, 말 많은 세상이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정보들이 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세상, 온 · 오프 가릴 것 없이 개인의 의견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별 생각없이 SNS에 올린 말 한마디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정화되지 않은 말들이 마구 세상 밖으로 나온다. 삼삼오오 모여앉으면 모두가 나름대로 정치 전문가, 교육 전문가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다 보면 하나같이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나만 옳은 사람’ 끼리 가끔은 심한 언쟁을 벌이기도 한다.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 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그 정보로 자신만의 주관적 판단을 한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다. 다름이 생겨도 남의 판단이 그르다는 생각만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 내가 해서 로맨스면 남이 해도 로맨스다.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다 보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수록 서로에 대한 비방이 갈수록 험해지고 넘치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도 생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남에게 쉽게 하는 말이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남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사람의 입이 쇠도 녹인다고 했다. 비도덕적 · 비윤리적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된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경우가 있다. 남을 비난하기는 쉬워도 만의 하나라도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그들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말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말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말을 조심하고 아끼면 많은 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지도자일수록,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말을 삼가고 두려워해야 한다. 말로 인해 실패한 지도층 인사들이 많을 수록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대가 바로 내가 된다.

이런 시조가 생각난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변정식 기자

국민연금 Q&A

Q.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 전 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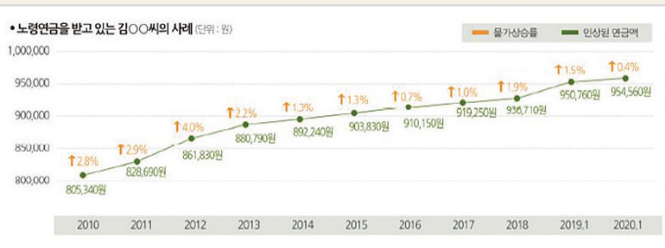
* 국민연금법 개정(2019년 1월 15일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4.7%	2.8%	2.9%	4.0%	2.2%	1.3%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1.3%	0.7%	1.0%	1.9%	1.5%	0.4%

▷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2010년 대비 149,220원이 인상된 연금을 2020년 1월부터 받고 계신 사례

국민연금대구지사 / 국민없이1355



길을 묻고 답하다

결혼은 원석끼리의 만남

결혼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에 따라 보는 시각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대응방법도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서로 다른 보석의 원석끼리의 만남 이다!’라고 정의해 보고 싶다. 서로 부딪치고 비벼대며,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에게 갈고 갈리면서, 틈이 나기까지 서로 하나 되듯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아를 담고 값진 보석같은 삶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되기까지 함께 노력하는 것이 결혼이 아닐까 싶다.

이미 성숙하여 나름대로의 뜻과 모습을 상당부분 갖춘 뒤의 만남이라, 보석의 원석을 연마하는 것보다

는 분명히 더 어려울 것이 틀림없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끊임없이, 될 때까지, 되게끔 노력할 결심으로 만남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고 그 결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미 연마된 아름다운 보석을 선택하여 즐기는 것이 아닌, 가능성끼리의 만남이, 사랑과 배려가 빛내주는 완성의 기쁨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시작이 결혼이 아닐까 한다.

어제까지의 아름다웠던 손이, 이제부터 ‘우리’라는 단단하기만 하고 전혀 연마되지 않아 거칠기 짝이 없어, 아직은 돌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원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연마해 내기 위한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고 돌이 하나 되어 이루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향하여 시작을 알리는 것이 결혼이 아닐까 한다. 상대를 내 뜻, 내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여 내가 먼저 상대의 원함에 맞게 변화함으로써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함께 기뻐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협력하는 것이 결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요즘 연예인들끼리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들 잘 생기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는 사람들이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결혼이라 할 수 있다. 한 여론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가장

부로 선 · 정혜영 부부(1위), 차인표 · 신애라 부부(2위), 최수종 · 하희라 부부(3위)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들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만 보면 아주 행복해 보인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 것만 같았던 연예인 부부가 다 잘 사는 것도 아니며, 혼자보다 둘이 되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진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



먹어 본 **참가** 맛을 안다.

맛있는 녀석들

comedy TV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방송

iHQ comedy TV Dromax k-star LIFE CUBE TV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대구어린이기자단’

대구의 초등학교 4, 5, 6학년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구어린이기자단은 취재를 위해 직접 발로 뛰여 현장을 가고 기사도 아이들 스스로 작성한다.

대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이들이 작성한 기사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면 온라인 신문으로 발행되고 10일 경에는 종이신문으로도 발행된다.

어린이기자단 4기는 한 해 동안 900여 건에 가까운 기사를 써서 채택되었으며 신문의 조희 수만 해도 20만 건이 넘었고 댓글 또한 3,100개에 이른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한 기자단 4기는 활동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5기가 활동 중이며 이들이 쓰는 기사는 보통 우리 고장의 맛을 널리 알

리는 내용이나 대구의 자랑거리를 담은 내용이다.

어린이 기자들은 각자가 자신이 흥미로워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해 장소 구분 없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이연복 셰프를 만나거나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를 만나 취재하는 등 자신과 같은 또래 어린이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유명인을 인터뷰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20명 남짓이 함께 모여 이른바 ‘단체 현장 취재’도 가는데, 현장 취재를 위해 대구 미술관, 대구 출판지원센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대구의 주요 행사 및 장소 등에 매년 10회 넘게 다녀왔다.

취재부터 원고 작성까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신문은 편견 없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서 순수하게 기사를 썼다는 점에서 실제 어른 기자가 쓴 기사와는 차이점을 둔다. 색선 또한 문화즐거기, 함께하는 세상 외에도 우리 학교, 숨겨 자랑 등 특색 있는 섹션을 넣어 쉽게 아이들이 접근하고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을 담았다.

작성한 기사는 대구어린이신문(<http://kidsnews.daegu.go.kr>)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누리집 내 ‘대구어린이기자클럽’에서 어린이 기자단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지역의 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사회와 접해 보고 동시에 본인의 경험을 글로 적어보는 기자단의 활동은 기자라는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원욱 객원기자

예비 고1, 2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3.0’ 제공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고교생들이 입학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3.0’을 제작해 예비 고1, 2학생 모두에게 한 부씩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북을 제공받는 예비 고1, 2 학생이 치를 대입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대입 공정성 강화 등으로 종전과는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예비 고2(현 고1) 학생이 대상이 되는 2023학년도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의 경우 2022학년도 대입에 이어 자기소개서 항목이 현재보다 축소되

고, 수상 경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의 대입 반영도 제한된다. 예비 고1(현 중3) 학생이 대상이 되는 202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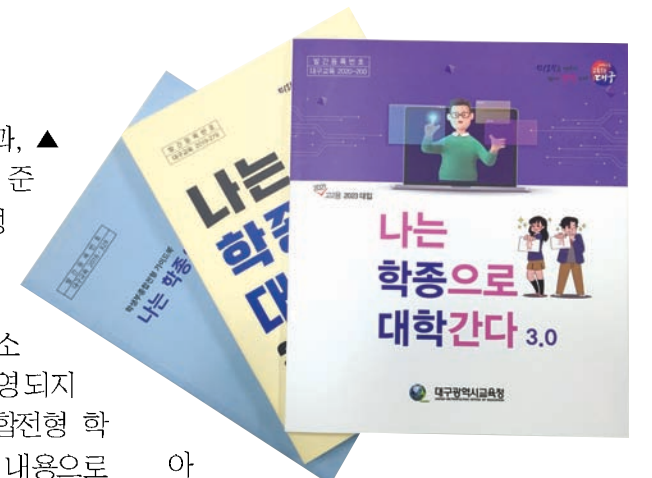
이처럼 해마다 대입제도에 변화가 있어 학생들이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고려해 이번 가이드북은 학년별로 맞춤형으로 제작해 개별 학생 모두에게 제공토록 했다.

예비 고2 학생 대상 ‘나는 학종으로 대학간다3.0’은 ▲학교생활기록부 눈대목 보기, ▲학생부종합전형 과목선택, ▲학생부종합전형 교과, ▲학

생부종합전형 비교과, ▲자기소개서·면접 준비 등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 고1 학생 대상의 경우 자기소개서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학생부종합전형 학교생활 디자인 등의 내용으로 교체되며, 그 외 영역에서도 종전과 달라진 사항을 빠짐없이 다룬다.

한편 이번에 제공되는 가이드북은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사항 중심으로 내용을 간소화하고 모든 내용을 시각화해 가독성을 높였다.



아울러 집필진의 온라인 직강 동영상과 상세 추가 자료 QR코드를 책자에 함께 제공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바뀌는 대입제도 속에서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연해

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불안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을의 경우 고교생활 전

체가 대상이 되므로 우리 학생들이 고교생활 내내 이번 가이드북을 잘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시교육청〉

광고문의
053. 572-6000

애니맥스 TV최초 방영!

도티TV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첫방송

ANIMAX

대구시교육청, 코로나가 쏘아올린 작은 도전

2020년 코로나 상황 교육 사례 모집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응답하라 학교 2020! 코로나가 쏘아올린 작은 도전’이라는 명칭으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 시도한 새로운 교육 정책, 창의적 체험활동, 원격 수업 등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사례를 20일까지 모집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는 밀집도 완화와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많은 변

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교와 교육 정책 기관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구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주도해 왔다. 이번 수기 모집은 변화된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노력과 도전을 주도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미래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구광역시 소속 중·고등

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영역은 ▲학교 생활 방역, ▲학생 밀집도 완화를 위한 학교 운영, ▲비대면 창의적 체험활동, ▲비대면 학생 중심 수업, ▲코로나19로 새롭게 시도한 교육정책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활동 이야기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등교육과(☎053-231-0357)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한 대구 교육 공동체들의 다양한 도전 사례를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함과 동시에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시교육청〉



21세기 생각의 도구를 키우는 경암중

코로나19로 학생활동이 축소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력저하가 우려 되는 요즘, 2020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전 과목 전년대비 우수한 성적으로 주목을 받은 경암중(교장 장영희)은 7월 1일 전교생 등교수업 이후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활용해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활동을 실시했다.

‘따파호체프(네 생각은 어때?)’로 열여가는 배움이 즐거운 협력수업,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학생중심수업과 과

정중심 평가가 그것이다. 그중 온라인학습카페 ‘온라인 개학이후 매주 한편 시낭송 실천’으로 총 시 100편 암송하기, 김동무(시 가목장) 작성으로 인성과 문해력 지도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11월 27일 온라인으로 실시된 시의 향연(시낭송과 암송대회)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개성을 담은 창작물로 문학작품을 표현하고 감상소감을 나누며 대면수업과 온라인 학생행사의 장점을 교육에 활

용하고 있다.

1학년 김수정학생은 “시를 외우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 걸요. 하지만 친구들 모두 같은 시를 함께 외운다는 것이 재미있고, 다 외우고 나면 뿌듯해요. 오늘은 시구 중 ‘모시 적삼’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쉬는 시간에 영어선생님께 물어 알게 되었어요”라고 했다.

시 암송은 경암중 특색사업으로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문학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에 앞장서고 있으며, 감성진 로코칭캠프, (조)부모와 함께 하는 진로 인성체험 등을 통한 바른 인성과 긍정적 자아형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장영희 교장은 “교사와 학생 모두 꾸준한 활동과 참여

를 통해 생활로 녹아드는 인성교육을 지향한다. 앞으로도 인성과 매너를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다”라며 인성교육의 포부를 밝혔다.

〈자료제공 경암중학교〉

피젯스피너 마음을 채우는 장난감

피젯스피너는 초조함이나 지루함을 뜻하는 피젯(Fidget)과 장난감 토이(Toy)의 합성어인 피젯 토이의 한 종류다. 웹사이트에 피젯토이를 검색해보면 한 손으로 들어 반복적으로 돌릴 수 있는 피젯스피너와 함께 쉽게 모양을 바꾸는 피젯큐브, 일정한 형태가 없는 스트레스 볼 등 다양한 피젯 토이를 찾아볼 수 있다.

피젯스피너는 회전을 주 운동으로 하는 장난감으로 가벼운 무게에 휴대성이 좋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초조하거나 지루하면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손을 움직이거나 불편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더 없이 매력적인 장난감으로 다녔다. 실제로 신성만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에 의하면 피젯스피너와 같은 장난감이 치료의 효과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 사람은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행위를 반복, 습관화시키는데 그 수단이 되는 게 바로 피젯스피너이다. 반복적인 돌리는 동작이 스

트레스를 어느 정도 줄여주기 때문이다.

모양이나 날개의 개수, 재질(목재, 플라스틱, 금속 등)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백여 가지가 있으며 가격도 몇 천원에서 몇 만원까지 다양해 본인의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 일부는 3D프린터를 이용해 본인만의 피젯스피너를 직접 만들기도 한다.

피젯스피너에는 회전이 잘 되도록 하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다. 회전의 중심이 되는 베어링이 중앙에 위치해있고 주변부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 베어링은 회전의 마찰을 줄여주고 동시에 무게 추 역할을 하여 원심력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몇 가지 변형을 해 보면서 교육적 활용도 기대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부에 동전을 하나씩 붙이면 원심력이 커져 더 힘차게 오래 돌아감을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고 돌아가는 피젯스피너를 잡고 있으면 손으로 전해지는 원심력을 직접 느껴볼 수도 있다. 이 밖에 도 수학 시간에 나오는 대칭 개념을 가르칠 때 참



고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

사람은 일상에서 자율감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무언가에 마음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피젯스피너의 유행이 심리적 공허함에서 기인했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단순히 놀잇감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이원욱 객원기자

대구소프트웨어고, Softwave 2020에서 주목받다

대구소프트웨어고(교장 안병규)는 지난 2일에 개최된 Softwave2020(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에 3작품을 출품해 완성도와 창의성 면에서 대졸출신 개발자를 뛰어넘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인재의 가능성을 보였다.

Softwave 2020은 안랩, 한글과 컴퓨터, 삼성SDI 등 유수의 기업이 참가하는 행사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구소프트웨어고는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의 참가는 추진하지 않고 학생들의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해 참가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며, 학교 홈

보 및 작품 설명을 위해 전문 교육부장인 김경호교사만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했다.

대구소프트웨어고에서 출품한 작품은 Coatcode와 윈터치 하우스, 도담도담 3가지였다. Coatcode는 의상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해당 의상에 대해 평가 및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iOS와 안드로이드 앱과 서버가 구축되어있는 상태이다.

윈터치 하우스는 IoT 모델 하우스로 학생들이 직접 건축한 모델하우스에 집의 조명에 해당하는 전구와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앱과 서버를 제작하여 앱을 통해 집의 조명의 밝기 및 카메라를 통해 불법 침

입자를 관찰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도담도담은 현재 대구소프트웨어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학생 관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외출, 외박 간소화 및 방과후의 학생 지도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경호 교사는 “기업인들 상당수가 본교 학생들의 기술력에도 주목하고 있지만, 아이디어 등을 비롯한 잠재력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채용 및 우리학교와의 콜라보레이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악화로 학생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었다면 더욱 알찬 행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



이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병규 교장은 “우리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현업 개발자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다.”

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계발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소프트웨어고〉

‘대구 배달앱 아이디어 공모전’ 후보작, 시민 투표

7~14일, 대구시 홈페이지 토크대구에서 온라인투표

대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 구현을 위해 시행한 ‘대구 배달앱 구축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선정작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다.

대구시는 음식 중개 서비스(배달앱)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주도 운영 방식의 대구형 배달플랫폼 구축을 결정하고 현재 서비스사업자 모집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아

이더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498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담당부서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벤트 공모형

7점, 정책아이디어 공모형 6점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후보작은 대구시 정책제안 사이트인 ‘토크대구’를 통한 시민투표

결과 30%, 배달앱 구축 실무추진단 심사 결과 70%를 반영해 최종 선정작을 결정한다. 온라인투표는 7일부터 14일

까지 대구시 홈페이지 토크대구 투표란(https://talk.dae-gu.go.kr)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참여 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대구시청〉

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출범

달서구(구청장 이태훈) 8일 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출범했다.

대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

라 당연직 위원 및 외부위원 9명의원,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달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과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예술 기반 시설 조성, 예술 프로그램 육

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 수여와 함께 열린 첫 정기회에서는 달서구 문화도시조성계획에 대한 자문과 향후 달서구 문화예술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문화예술 분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는 문화도시 달서구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고견과 의견 수렴, 소통·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고견들을 적극 수렴해 구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시민 힐링을 위한 ‘WINTER FESTIVAL’

30일까지, 다양한 공연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축제

대구문화예술회관(관장 김형국)일까지 ‘문화 예술로 전하는 치유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의 힐링을 위한 겨울축제 ‘WINTER FESTIVAL’을 진행한다.

지난 5일 대구시립무용단(예술감독 겸 상임안무가 김성웅)이 국내최초로 무대를 벗어나 공연장 로비, 대기실, 화장실 등을 활용한 유튜브 라이브 공연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를 우선 선보였다.

소중한 삶과 그 가치를 깨닫는 인문학 강의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오후 7시 30분에 인문학 강의를 진행한다. ‘공존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개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다가는 ‘함께’라는 시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강연자로 저명한 철학자 김형철,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자 인문학자인 김운찬, ‘7년의 밤’, ‘종의 기원’ 등으로 한국 대표 소설가로 자리매김한 작가 정유정이 참여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시립극단, 셰익스피어의 낭만 희극 ‘십이야’

17일 오후 7시 30분 팔공홀에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유환) 공연 ‘La Speranza’가 개최되며 24일과 25일 오후 7시 30분 팔공홀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으로 대구시립극단(예술감독 겸 연출 정철원)의 연극 십이야(Twelfth)를 선보인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로 평가받는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으로 쌍둥이 남매로 인해 벌어지는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로 유쾌한 고품격 코미디는 가족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WINTER FESTIVAL’ 스케줄

공연명	일시	장소	티켓	문의
DAC 인문학 극장	12. 09. (수) 12. 10. (목) 12. 11. (금) 19시 30분	비슬홀	전석 5천원	053-606-6345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23회 정기연주회	12. 17. (목) 19시 30분	팔공홀	A석 3천원 B석 2천원	053-606-6314
대구시립극단 제50회 정기공연	12. 24 (수) 19시30분 - 12. 25. (금) 17시	팔공홀	R석 1만5천원 S석 1만2천원	053-606-6323
대구문화예술회관 송년음악회 ‘시민 힐링 콘서트’	12. 27. (일) 17시	팔공홀	전석 1만원	053-606-6131
대구시립국악단 제200회 정기연주회	12. 30. (수)	팔공홀	전석 5천원	053-606-6193

Adieu 2020, 송년음악회

27일 오후 5시에는 시민들의 힐링을 위한 특별한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1부에는 전국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소프라노 임은송, 테너 노성훈 그리고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세계적인 바리톤으로 성장한 이응광이 함께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 갈라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영남대학교 교수 백윤학 지휘자가 디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다. 2부에는 가수 최백호가 특별 출연하며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보고 싶은 얼굴, 낭만에 대하여와 같은 명곡들을 클래식 편곡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대구시립국악단, 전통 국악으로 한해 마무리

페스티벌의 피날레는 대구시립국악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현창)이 장식한다. 30일 오후

7시 30분에 작곡가 강한희의 국악 관현악 ‘청라’ 초연을 시작으로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 ‘푸른 사막의 여정’, 양성필류 대금산조 협주곡 ‘소명’,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자룡, 만경창파를 가르다’를 연주한다. 특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콰이어와 함께 ‘국악 관현악을 위한 교향곡 제1번 별 4악장’을 장중한 정악풍의 선율로 웅장하게 감상할 수 있다.

김형국 관장은 “오랜 거리두기로 지쳐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며,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전하는 치유의 힘으로 추운 겨울 따뜻함을 담아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23회 정기연주회 ‘라 스페란자(La Speranza)’

17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김유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취임 첫 정기연주회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유환)의 제123회 정기연주회 ‘라 스페란자(La Speranza)’가 17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개최된다.

코로나블루 아웃 영상 등 많은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온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회는 김유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취임 후 첫 정기연주회이다.

연주회의 첫 번째 무대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그

리움을 표현한 곡을 연주한다.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따스한 어머니의 품에 빚대어 관객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 곡으로 ‘더 실 물라비’ (The Seal Lullaby / 물개 자장가)를 연주하고, 이어 이진실 편곡의 ‘엄집아기’, 이기경 작곡의 ‘엄마야 누나야’를 감상할 수 있다.

두 번째 무대는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제작한 코로나블루아웃 영상 ‘썬이아’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상연한다. 코로나19로 마음의 불안과 우울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제작했던 두 편의 영상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세 번째 무대는 빠르고 독특한 리듬과 화성이 돋보이는 합창곡 ‘위스퍼!’ (Whisper! / 속삭임), ‘시르칼리크’ (Sir’r Khaalq / 창작마법), ‘엘 리트모 데 라 노체’ (El Ritmo De La Noche / 밤의 리듬)를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연주하며 관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모든 연주가 끝난 후 펼쳐지는 특별한 앙코르 퍼레이드 무대도 관객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출연으로는 팬텀싱어 시즌2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팬텀싱어 프렌즈(권성준, 조휘, 김지원)가 출연하고 SBS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남자주인공 박준영(김민재)의 주요 피아노 연주 장면을 대역했던 피아니스트 송시찬이 속한 핑거플렉스(송시찬, 김지원)의 화려한 연주로 이번 정기연주회를 더욱 풍성하게 꾸민다. 1층 3,000원 2층 2,000원이며, 6세 이상만 관람이 가능하다. 예매는 티



켓링크 (1588-7890 / www.ticketlink.co.kr) 이용.

〈자료제공: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20년 마지막을 화려하게! BEST OF THE BEST

11일 오후 7시 30분,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Classic on Stage 더블베이스리스트 성민제,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Musical on Stage 뮤지컬 스타 정선아, 마이클리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송년 콘서트로 최고의 클래식, 뮤지컬 스타들이 출연하는 DSAC 시그니처 ‘BEST OF THE BEST’를 11일 오후 7시 30분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한다.

DSAC 시그니처 시리즈는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 및 단체를 초청해 최고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는 웃는얼굴아트센터만의 레퍼토리다. 지난 10월 첫 선을 보인 ‘Rock on Stage 국카스텐 X 디어클라우드’는 지역민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DSAC 시그니처 시리즈 두 번째 공연으로 선보이는



정선아

마이클리

성민제

이경선

백윤학

‘BEST OF THE BEST’는 코로나19사태로 한 해 동안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할 이번 공연은 45인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클라츠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백윤학)와 함께 최고의 클래식, 뮤지컬 스타들이 출연한다.

첫 번째 무대는 Classic on

Stage. 정명훈이 이정한 라이징 스타에서 최근 클래식계 핫 이슈로 떠오른 더블베이스리스트 성민제와 한국인 최초 워싱턴 국제 콩쿠르 1위에 빛나는 탑 솔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출연해 클래식 무대를 선보인다.

2부는 Musical on Stage. 폭발적인 가창력과 탁월한 무대매너로 매 공연 최고의 무

대를 보여주며 자타공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디바 정선아와 감미로운 음색과 뜨거운 에너지로 동서양을 사로잡은 최고의 뮤지컬 스타 마이클리가 펼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이어진다.

두 사람이 출연하였던 명작 뮤지컬들의 넘버들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무대로 클라츠필하모닉오케스

트라와의 하모니를 즐길 수 있다.

공연을 준비한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은 “코로나사태로 힘들어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클래식과 뮤지컬의 최고 스타를 한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송년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문화재단〉

대구시향, 2020년 마지막 정기연주회

조국, 연인, 음악을 향한 찬란한 사랑

22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대구시립교향악단(이하 대구시향) ‘제471회 정기연주회’가 22일(화)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임주희가 협연한다.

이날 무대에서는 예술의 영원한 주제, 사랑을 각기 다른 빛깔로 그린 세 작품을 만난다. 조국 체코에 대한 애국심을 담은 스메타나의 ‘블타바’, 영화 ‘엘바라 마디간’의 주제곡으로 사용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그리

고 오페라 ‘카르멘’의 작곡가 비제의 소년 시절 순수한 열정이 깃든 교향곡을 선사한다.

대구시향과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된 피아니스트 임주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는 과감한 표현과 비극

적인 정서를 풍부한 감성으로 승화하는 방법론으로 관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러시아 백야의 별 페스티벌, 프랑스 앙시 페스티벌에서 발레리 게르기에프 지휘자와 협연했고, 서울시향 유럽투어 프리뷰 콘서트, 아시아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등에서 정명훈 지휘자와 협연한 바 있다. 신예답게 2020년 포브스 코리아 ‘2030 차세대 리더’로 선정된

그녀는 현재 신수정 서울대 명예교수와 피아니스트 강충모를 사사하고 있다.

일반 R석 3만원, S석 1만6천 원, H석 1만 원으로,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객석 운영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공연 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 인터파크(1661-2431)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053-250-1475

〈자료제공:대구시립교향악단〉



보이지 않는 흡연 '3차 흡연'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0년
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이쯤 되면 올해 이루어낸 성
과가 무엇이 있는지 혹은 목
표 달성을 내내 두고 미루어어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지 마련이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
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연이
다. 흡연이 주는 피해는 피부
노화부터 시작하여 각종 암까
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간접
흡연을 생각한다면 나의 흡연
이 주변 사람, 특히 가족의 건
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간접흡연과 관

련하여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3차 흡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간접흡연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면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강요·강제된 흡연'으로 일컬어지는 간접흡연은 오로지 흡연자의 담배연기에 의한 것이며, 반대로 담배연기만 피한다면 간접흡연의 위험 요소는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도 아이들은 기침이나 중

이염, 심하면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문제는 담배연기만 피한다고 이러한 담배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수는 없다는 점이다. 바로 3차 흡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3차 흡연은 흡연할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이 흡연자의 피부나 옷 등에 흡착되었다가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오으로써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것이다.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유해 물질의 흡착이 아이들 장난감 및 가구 심지어 어 집 먼지에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유해성이 더 커지기도 하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기어 다니면서 바닥과 접촉이 많고 호흡이 빨라 3차 흡연에 노출 되는 정도가 성인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흡연은 코로나19감염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시 마스크를 벗고

손가락
을 입에 가
스에 더 숨
이다. 또한
코로나 바
는 몸 속 수
것도 하나
아들은 말한
육 객원까지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안면신경마비

날이 추워지면 안면마비증상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많아진다. 안면신경마비의 한의학적 병명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안와사, 구안쇄사(口眼喎斜)’다. 얼굴의 움직임, 미각, 침샘, 눈물샘 등을 지배하는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이야기하며, 과로, 스트레스, 대상포진, 외상, 발치 후 감염, 한랭(寒冷) 노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안면마비의 경우 뇌경색이 등의 뇌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를 구별해야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병원을 먼저 다녀와 CT, MRI 등 촬영을 통해 확인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중추성과 말초성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마에 주름을 만들 수 있는지’이다.

중추성의 경우 이마에 주름을 지을 수 있지만 말초성의 경우 주름을 지을 수 없다. 말초성안면마비의 경우, 얼굴의 비뚤어짐 뿐 아니라 이상감각이 나타날 수 있다. 얼굴이 둔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미각, 타액분비, 눈물분비 이상, 청각 과민 등을 동반할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풍사의습(風邪外濕), 허풍내동(虛風內動), 기혈어저(氣血瘀阻)로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바이러스나 찬바람 등의 외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것인지, 기혈정체로 허혈이 발생되면서 발생한 것인지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한약 치방과 함께 침, 뜸 치료가 병행된다. 안면부 손상된 신경과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환부에 치료가 들어가고 하고 기혈 순환을 돕기 위해 마비가 되지 않은 쪽(건측)에 치료도 한다. 전진, 부항, 약침 등의 치료 뿐 아니라 근육을 이완시키고 틀어진 골격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의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안면마비의 정도를 줄이고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마비된 부분에 찬바람을 자주 쐬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면운동을 틈틈이 해주는 것이 좋다. 환측으로 검을 씹고 이마에 주름을 지어보고 콧등을 찡그려 보는 등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들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영양섭취를 해야한다.

안면마비 초반에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3개월이 지난 후 양방치료 속도가 더디다고 느껴지면 오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면서 침구(鍼灸)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 속도가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꼭 침구 치료를 받길 권한다.

대구시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식품첨가물 이모저모

간장, 딸기잼, 햄, 라면, 단무지, 빵, 치즈, 어묵까지. 앞에서 나열한 것들을 아예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당당히 이 것들 모두를 먹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대부분은 식품첨가물을 거의 매일 먹으며 살고 있다. 착색료, 보존료, 감미료 등등 종류도 다양한 식품첨가물,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먹고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심의회에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한 첨가물로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본연의 맛을 살려주기도 하며 때로는 영양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에는 식품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엿, 당무지 등), 식품에 색을 부여하는 착색료(소스류, 떡, 보온기간을 연장해주는 보존료(간장, 말기젤) 등이 있다.

그렇다면 식품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식품이 있을까?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자연 그대로 생산된 농축산물, 제철 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식품에는 식품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식품 첨가물은 안정성이 보장되어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활용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이 워낙 다양하고 식품 첨가물의 종류도 많아 과다섭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식품첨가물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데 끓이거나 데친 뒤 요리하는 방법이 있다. 어묵은 미지근한 물에, 라면류는 끓는 물에 한번 조리한 뒤 사용하고, 단무지나 통조림도 물에 살짝 헹구어 사용하면 식품첨가물의 섭취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체에 들어간 식품첨가물의 배출을 돕는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거나 다스마나 멸치 등 천연조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품 첨가물은 매일 먹어도 해롭지 않도록 1일 섭취 허용량이 정해져 있고 허가된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되어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크게 화학적 합성첨가물, 천연 첨가물로 나뉘는 식품첨가물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현명한 섭취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

이원욱 객원기자



기쁨 Plus
SBS Plus



다 함께 fun!
SBS funE



함께 만드는 스포츠 세상
SBS Sports



골프의 모든 순간
SBS Golf



의견있는 경제채널
SBS CNBC

Music & More
SBS MTV

Kids First
nickelodeon

SBS Medianet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SBS Plus



SBS Sports



SBS Golf



SBS funE



SBS CNBC



SBS MTV



nickelodeon

